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영향 :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영숙* · 이영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Marital and sexual satisfaction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of spouse

Yeong Sug Yi* · Young Hwa Lee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1. 서론

혼외관계는 대부분의 부부에게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가족해체의 중요한 요인(양옥경 외, 2005)이 되고 있다. 1981년~2004년 동안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사유를 조사한 결과(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4),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적응에 매우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남녀가 혼외관계를 가지는 일을 주위에서 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흔하다. 이에 혼외관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여러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혼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혼외관계가 부부관계 만족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결혼만족도는 그것 자체로 혼외관계와 관련되는데(Brown, 1991; Vaughn et al., 1995), 혼외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혼외관계와 부부간의 불만족과 무관하다고 했으나, 이후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관련문헌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를 지적함으로써(이영숙 외, 2000)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혼외관계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혼외관계와 결혼생활 적응은 부정적으로 관련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보는 시각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일까라는 의문에

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영향은 성에 따라 어떠한 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1-3월에 조사한 설문지 492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및 성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는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묻는 단일문항, 결혼만족도는 최규련(1988)이 사용한 척도 중 24문항(Cronbach's $\alpha=.89$), 그리고 성만족도는 김 연(2001)이 사용한 척도 중 10문항(Cronbach's $\alpha=.75$)을 각각 사용하였다. 조사결과는 빈도, 백분율, χ^2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만족의 영향력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만족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2.7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남성의 허용적 태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표 1>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남성			여성		
		B	Wald	Exp(B)	B	Wald	Exp(B)
배경변인	교육수준	-.00	.00	.99	.42**	7.22	1.52
	소득수준	.25	1.90	1.28	-.01	.00	.98
	결혼기간	.14	.74	1.15	.30	3.29	1.35
	종교(있음=1)	.02	.00	1.02	-.61*	4.13	.53
만족도	성만족도	-.99**	7.57	.37	-.04	.02	.95
	결혼만족도	-.40	2.86	.66	-.51*	5.37	.59
-2LL		242.02			285.48		
Cox & Snell R ²		.093			.069		
Nagelkerke R ²		.137			.096		
chi-square		22.60***			17.03**		

*p<.05 **p<.01 ***p<.001

- 계수(B)가 음수인 경우에는 Exp(B)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고적으로, 바뀐 준거범주의 Exp(B)를 계산하는 식은 '1/원래준거범주의 Exp(B)'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종교,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여성의 허용적 태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특히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1.69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여성의 허용적 태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각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영향미치는 변인이 다르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기간, 종교 등 배경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배경변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도가,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는 성적 만족도가, 여성에게는 성적만족도보다는 결혼만족도가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을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와 관련시킬 때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혼외관계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 연(2001). 기혼남녀의 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 이기연 · 박지영 · 이현영 · 김은실(2005).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 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규련(1988). 한국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own, E. M., & M. S. W. (1991).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Brunner/Mazel Publishers.
- Vaughn Call, Susan Sprecher, Pepper Schwartz(1995). The Incidence and Frequency of Marital Sex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39-652.